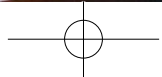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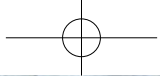


Interview

다들,
다들하고 서슴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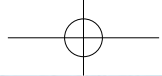


Interview

29

그런 날이 있다. 다 괜찮을 거라는 위로가 왠지 태평한 말 같아 미워지는 날. 힘들었겠다. 잘될 거야. 평소엔 따스하다고 생각했던 말들도 그날만큼은 껌바퀴에 머물다 획 떠나버리곤 한다. 그럴 때 붙잡고 싶은 건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누군가의 일기에 적힌 문장들이다. 나는 이래. 이렇게 살아. 일기장 속 부끄러운 고민까지 망설임 없이 꺼내 보이는 이들을 만났다. 그들의 음악에 담긴 투박한 고백은 듣는 이의 마음을 장난스레 두드린다.

헛수로 7년째 여전히 '재밌어서' 음악을 한다는 네 명과 이야기를 나누다 문득 궁금해졌다. 밴드 다섯의 7년 뒤는 또 어떤 모습일까.



Interview



약 2년간의 군대 공백기를 마치고 곡을 발매하며 활동 재개를 알렸는데요. 새로운 출발점에 선 지금 다섯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민현 작년에 작업실을 구해서 다시 합주를 시작했어요. 작업도 하고 자주 만나서 얘기도 많이 해요.

리우 일단 오래 쉬었기 때문에 본래 컨디션으로 끌어올리려고 해요. 많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늘 해왔던 것처럼 잘 놀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준 개인적으로는 얼마 전에 허리 디스크가 터졌어요. 다섯으로서 마음가짐은 설레는 게 크죠.

용철 공백기 동안 원래 하던 일과 멀어지다 보니 손도 굳고 조금 우울하긴 했어요. 그래도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섯의 곡들은 모두 리우님이 쓰신다고 알고 있어요. 3월에 발매한 싱글 ‘나는 내가 정말 무사히 도착하길 바라’는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진 곡인지 궁금해요.

리우 ‘나는 내가 정말 무사히 도착하길 바라’는 제가 밴드 활동을 하다가 사회 복무 요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을 때 스케치한 곡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빨리 시간이 흐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쓰기 시작했는데, 막상 전역하고 나서야 곡을 완성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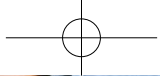
어떤 부분이 힘들었는지 물어도 될까요?

리우 항상 주체적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라 그 상황이 주는 괴리감이 컸어요. 이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도 했어요.

힘든 시기가 시작점이어서 그런지 가사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담긴 것 같아요. 곡 소개도 인상적인데요. “우리의 여행은 바다로 산으로 그리고 돌고 돌아 언젠가는 땅으로 돌아가 사라질 것을 알기에.”라는 문장으로 끝이 나죠.

리우 그때 많이 했던 생각은 사람은 태어나고 죽는다는 당연한 사실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인생에서 좋은 감정을 느낄 때도 있지만 안 좋은 감정을 느낄 때도 많잖아요. 태어나서 죽기까지 어떤 감정을 마주하든 잘 안고 가서 잘 죽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싶었어요.





Interview

다섯의 밴드 사운드를 시원하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더운 여름날 그들을 찾듯이 다섯의 음악을 찾게 되는 것도 그 때문인 것 같아요. ‘그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각자 떠오르는 다섯의 곡이 궁금해요.

리우 ‘야,야’. 그늘이라는 게 결국 그림자잖아요. 저마다 남에게 보여줄 수 없는 그림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야,야’는 그걸 유쾌하게 풀어낸 곡이라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현 ‘섶표’. 그늘이 해를 막아줘서 저희가 시원하게 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쉬다 오자’는 내용이 담긴 곡이 떠오르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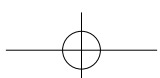
경준 ‘Camel’이요. 이유는 그냥 느낌이 그래서, 그게 다예요.

용철 저는 그늘이 위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신곡이요.

리우 제목이 뭐죠?

용철 나는 내가 무사히 도착하길 바라.

모두 ‘나는 내가 정말 무사히 도착하길 바라’.(웃음)





저는 'Tell Me What U Need'라는 곡이 떠올랐어요. 외롭지 않으려면 자신을 바꿔야만 하는 건지 고민하는 가사를 들으면 제 그늘진 면을 마주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멤버분들에게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리우 나를 찾아가는 과정. 변화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살다 보면 자연스레 변화하기도 하면서 자기 주체를 찾아가는 거죠.

용철 저는 '밀린 숙제'라고 표현해보겠습니다. 해야 하는데 미루다 못하는 느낌이었을까요. 항상 변화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도 언젠가는 해야지, 하고 다짐합니다.

민현 변화해야겠다는 생각은 늘 해요. 하지만 어렵네요.

경준 제게도 변화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원해서 변할 때는 기분 좋은데 어쩔 수 없이 변해야 할 때는 정말 힘들어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께서 '변화는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을 묶어 놓고 왼손으로 생활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죠.

용철 너 왼손잡이잖아.(웃음)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함께 음악을 해 왔다고요. 작업이나 합주할 때 처음에 비해 점점 맞아가는 부분이 있나요?

리우 음... 음악적으로는 맞춰지면 안 돼요. 그러면 도태될 것 같아요. 말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 생기면 발전할 수 없어요.

경준 처음과 달라진 게 딱히 없어요. 그때도 잘 안 맞았고 지금도 잘 안 맞아요.(웃음)

그래서 다섯이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거군요.

(웃음)

리우 그게 그렇게 귀찮되네요.

벌써 햇수로 7년째 음악 활동을 하고 있죠.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되면 오히려 괴리감을 느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음악은 네 분에게 일터인가요, 쉼터인가요?

경준 쉼터예요. 일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앞으로든 그럴 거고.

리우 저도 쉼터 쪽인데 어쩔 수 없이 업무적인 것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좀 힘들고 괴롭죠.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건 아직도 서툴러요.

용철 반반이요. 매번 다른 것 같아요.

민현 저도 그래요.

일터이자 쉼터인 음악을 계속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있을까요?

민현 노래 많이 들어주실 때마다 힘이 나죠.

용철 맞아요. 공연할 때 들었던 관객들의 호응이 그리워서 계속 음악을 하게 돼요.

경준 저는 조금 전에 말했듯 쉼터라고 느끼기 때문에 원동력은 따로 필요 없어요.

리우 저에겐 음악을 한다는 게 늘 어려운 걸 해 나가는 것과 같아요. 음악에는 정답이 없으니까요. 오히려 어려워서 계속하게 돼요. 새로운 작업을 할 때마다 해결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게 아직도 너무 재밌고 신기해요. 합주할 때 합이 엄청나게 잘 맞거나 좋은 라인이 나오면 그만한 재미가 없어요. 살면서 재밌고 좋은 걸 많이 해봤지만 이보다 재밌는 건 아직 못 찾았어요.

음악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다섯의 곡에서 화자는 늘 방황하거나 사유하며 스스로에게 질문하곤 하죠. 많은 사람이 이러한 가사에 위로를 받았다고 말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리우 똑같이 힘드니까. 저희는 음악을 하는 것뿐이지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음악 활동을 해야 할 때도 있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면서 느끼는 당연한 감정들을 곡에 담으려고 해요. 좋은 건 잘 나누는데 반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많이 다뤄지는 것 말고 잘 꺼내지 않는 것들을 나누고 싶어요. 그래야 더 이상 그 감정들로 힘들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도 이렇고 너도 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라는 느낌으로요.

특별하지 않아서 더 다정한 위로네요.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청춘들에게 다섯이 음악을 통해 건네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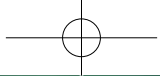
리우 주로 '부끄럽지만 저는 이렇습니다.'인 것 같아요. 이 세상 어딘가에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걸 전하고 싶네요.

2019년 한 인터뷰에서 페스티벌에 서고 싶다고 말했었죠. 그리고 올해 'PEAK FESTIVAL 2023'을 시작으로 여러 페스티벌 무대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미래와의 인터뷰에서도 다섯으로서 이루고 싶은 바람을 듣고 싶어요. 머지않은 미래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요.

경준 저는 디스크가 파열돼서 그런지 안 아프고 싶어요.

리우 맞아요. 안 아파야 음악을 오래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월드 투어요. 옛날에 월드 투어하던 가수들 보면 엄청나게 큰 화물차에 장비들을 다 싣고 다니면서 투어 중에 곡을 쓰더라고요. 그게 진짜 해보고 싶어요. 사막 같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곡 쓰자!' 하고 다 같이 작업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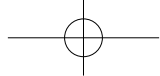
용철/민현 공감합니다.



Interview



35



Interview



마지막 질문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올해, 멤버분들 각자가 '무사히 도착하기를 바라는' 곳은 어디인가요? 무탈하게 해소되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하셔도 좋아요.

민현 당장 이번 공연 무사히 잘하는 거요. 오랜만에 하는 거라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해요.

용철 30대가 되니 책임져야 할 것도 많고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해야만 하더라고요. 30대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잘, 무사히 넘기길 바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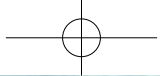
리우 저는 죽을 때 자다가 죽는 거.

올해 무사히 도착해야 하는데요?

리우 아, 올해요?

경준 꿈이 진짜 크다.

리우 올해를 못 들었어요. 큰일 날 뻔했다. 죽을 뻔했네.(웃음) 올해는 다시 시작하는 만큼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nterview

다섯의 음악 속 화자가 물음표가 아닌 마침표를 찍는 날이 올지 묻고 싶었다. 그런데 인터뷰 도중 청춘이란 무엇인가 자문하는 그들을 보며 이미 답을 들은 것 같아 웃고 말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슴없는 말들에 자꾸 웃음이 터지던 대화를 곱씹다가 생각의 끝자락에 마침표 하나를 찍었다. 그들의 음악에 넓고 깊은 감정들이 묻어나는 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울고 웃고 때로는 화내다 옆 사람을 와락 안아버리는 변덕스러운 마음의 신호들. 솔직하고 덩덤하게 그것들을 써 내려가는 법을 그들은 알고 있으니까.

너와 나의 그림자가 모이면 우리가 쉴 수 있는 그늘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음악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곁에 있다.



글 / 정지운 사진 / 정지운